"낙마 불가" vs "채택 불가"

여야,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책임론 놓고 강 대 강 대치
박양우·문성혁 청문보고서 채택…진영, 내일 채택 안건 심의

2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절대 불가 방침과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2일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오는 8일 장관 임명 강행 등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연철·박영선 후보의 지명철회는 물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김영철·박영선)의 지명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히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지난 주말 단행된 장관 후보자 2명(조동호·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는 깊게 내려진 종기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환부 위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조국·조현옥 수석의 경질과 김영철·박영선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격이 정쟁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 속에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전날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에 보조를 맞추며 방어막을 더욱 강하게 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김연철·박영선 후보의 낙마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2명이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했으니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채택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낙마한 두 후보자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청와대의 입장은 알겠지만 국민이 이를 이해하느냐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 등의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11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10일)하기 전인 8일께 보고서 채택 없이 두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여권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이 '부적격' 의견을 전제조건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후보들의 보고서 채택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전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의 청문보고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전에 진영 장관 후보의 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박영선·김연철 임명 의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방미 전 매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보고서 재송부가 7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등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 마감 다음날인 8일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4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문 장관은 2일 각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박양우·문성혁 장관은 3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이후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8일까지 신임 장관의 임명을 마치고자 하는 것은 9일 국무회의, 10일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3 보선 대혼전 …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한국당, 경남 FC 불법 유세
돈봉투 전달 논란 휩싸여
민주·정의당 지도부 총출동

민주당 대표 "여영국 후보에 한표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이 대표, 여 후보,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4·3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각 후보 진영에서는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인 가운데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각종 논란과 비방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한 경남 창원 성산에선 고 노회찬 의원 비방 논란과 자유한국당의 경남FC 유세 논란이, 통영 고성에선 한국당 후보 측근의 돈봉투 전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혼전 양상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 2석에 불과하지만 선거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맹공을 펼치면서 연합전선 구축을 공고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통영 고성에서 가진 양문석 후보 지원유세에서 한국당을 향해 "그라운드 무법자", "돈으로 선거를 하려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근이 지역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돈 써서 선거하는 저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창원에서도 불법, 통영에서도 불법이다.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게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 없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FC 유세 논란과 관련, 황 대표는 "제대로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는 '탈원전 vs 원전 지킴이' '이념 vs 삶' 프레임을 내걸며 "우리 당은 탈원전 저지에 모든것을 걸고 신한울을 지켜낼 것이다. 허황된 정치이념 실험으로 죽은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선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는 연령별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 군소정당 지지율 등이 꼽히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경기장 유세' 경남 FC 벌금 2천만원

프로연맹 상벌위 회의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민주당 여수 지역위 '총선체제'

합동 개편대회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주철현(갑)·정기명(을) 위원장 체제로 본격 개편하고 내년도 치러질 총선 준비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2일 민주당 여수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 합동 개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편대회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이형석 최고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두관 국회의원,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단체장, 당 시·도의원, 대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더불어연예봉사단과 대학생 서포터즈의 화려한 축하공연과 함께 당기입장, 서완석 시의회 의장의 개회선언, 주재현 을지역위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 갑·을 위원장 인사말 그리고 당원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주철현 위원장은 "당의 지혜를 하나로 결집시켜 우직하게 전진해 가겠다"며 "이번 개편대회를 시작으로 총선승리는 물론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해남 옥천면 산과 전 36625㎡ 농장 등 적합 은행 9천 매도 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대지 등 1749㎡ 교환가능 1억6천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
문의. 010-3605-5000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사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세라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 채용시까지